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발간

(사)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총재 심타)가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지침서를 시리즈로 발간한다.

파라미타는 지난 9월 회의를 갖고 오는 1월 개최되는 분회장 연수회까지 총 3권의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파라미타지도자 지침서 발간계획에 따르면 1권 파라미타 규약집(창립취지 및 배경, 이념, 강령, 회가) 2권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불교상식, 불자예절, 부처님의 생애, 수행활동) 3권 프로그램(법회, 수련, 인초, 야영활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활동도 편하고 맵시를 살린 생활법복이 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생활법복의 인기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교TV 육법공양회와 자원봉사단이 개최한 생활법복 바자회 등을 계기로 생활법복을 애용하는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생활법복 전문업체인 김상우 리웃(대표 김운자)을 비롯 전국 각 승복점에는 천연섬유로 디자인한 다양한 생활법복이 전시, 판매하고 있다. 생활법복의 특징은 개량한복의 형태에서 벗어나 저고리, 바지, 블라우스 등을 현대감각에 맞게 세련되고 착용하기 쉽

다. 게다가 탈실로 만든 목도리, 모자, 장갑, 그리고 가방과 신발 등의 소품도 곁들여진다면 불자들 멋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성불자들이 주고객이었던 생활법복은 점차 거사들의 수행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남성불자들의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승복점들의 공통된 얘기다. 더구나 최근 정부차원으로 한복입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법복의 가격은 약 1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자들이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생활법복이 보다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유통업의 단일화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누비짚 보유자 김해자 씨

“마삼근 화두로 땀땀이 누비짚”

“세밀하고 견고한 전통 손누비옷은 세계적 하이패션입니다.”

지난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로 새로 지정된 바느질 기법인 누비장(匠)의 보유자(인간문화재)로 인정된 김해자 씨(45·경남 창원군 영산면 성내리 105).

김씨는 백여년전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전통한복인 손누비옷

을 재현 인간문화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가 누비옷의 최고장으로 우뚝서기까지는 30년간 오롯이 외길을 걸어온것 외에 참선수행이 뒷받침됐다. 16년전 마음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시절, 그는 백련암으로 성철스님을 찾았다. 3천배의 관문을 통과한 그에게 스님은 하릴 '마삼근(麻三斤)'이라는 화두를 내렸다. 이후 그의 화두는 바느

질 땀땀이 실려 옷감사이를 누비게 된다. 그의 참선화두쌍수(針線)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불명이 수산화(水山華)인 그는 경봉스님을 추근에서 1년간 시봉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어머니의 체온이 스며있는 손누비옷의 포근함은 재봉틀로 누빈 기계누비옷과 비할 바가 아니죠.” 손누비옷은 공기의 흐름이 천과 바느질사이를 순



환하면서 날씨와 체온의 변화에 따라 따뜻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해준다는 김씨는 손누비옷에는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대구=이윤호 기자

시 · 공 · 사 · 의 · 불 · 교 · 책 · 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마흔 권의 책과 나는 진지한 대화

시 한 편을 외워 봅니다.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밑줄 그으며 학술서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나 불교가 느껴집니다.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불교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 안에도 책 밖에도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길라잡이
 곱잡한 지음 / 값 18,000원

미라레빠의 十萬頌
 가르미 렌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실 품이 옮김 /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렇기 지음 / 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희범 지음 / 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티키 순유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시공 불교 총서

-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 E H 브루스터 편지 / 박태성 옮김
- 2 붓다의 옛길 / 피아넷 지음 / 원경수 옮김
-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 4 불교 철학사 / D J 랠프파하나 지음 / 김중욱 옮김
- 5 불교 심리학 / 루네 E A 오오타 지음 / 박태성 옮김
- 6 유식입문 / 다카시카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근간)

지은이 김호성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는 숨어 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입니다.’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생활화 주춧돌은 여성불자”

이창숙씨 ‘불교의 여성 역할’ 논문발표

“기복탈피 남녀평등·정체성 확립돼야”



오늘날 여성 불자들의 삶에서 불교가 사회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가 지난 20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관에서 마련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창숙 동국대 강사는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신앙형태와 입지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강사는 부처님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듯이 한국 불교도 전래초기부터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어

져 왔다고 주장했다. 신라시대에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 불교를 수용했고 불교를 생활화했던 고려 여성불교의 활동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강사는 최근들어 비구니스님들의 경우 수행에 전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포교단, 유치원 운영, 사회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가여성도 사찰의효의 주역으로 간경, 참선, 염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기복적인

신행생활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변성남자성불설(變成男子成佛說·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변해야 성불할 수 있다)과 같은 것이 불교여성관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여성불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는 향상됐지만 여성불자들의 활동은 미약하며 시대의 추이에 맞는 종교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려면 남녀평등관에 입각한 불교관 정립과 그에 맞는 신행생활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교단내에 여성의

입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여성불자의 정체성 확립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 △교단의 남녀평등관 수립 △기복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교육체계 정립 △여성불자들의 발언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여성불자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른 신행생활을 할 때 한국불교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여성불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

만 화

법구경

법 구 경

* 바라문의 장 *

모든 것을 통달하고 성취한 사람

이 창 원

와! 눈이 겁나게 쏟아지네

이런날 애들 데리고 스키장이라도 가면 멋지겠다

당신의 견은 어떠신가?

어느때 부처님께서 위계양 증세를 보이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빠와나장로 비구에게

데와히마 브라흐민한테 가서 뜨거운 물 한 항아리를 받아 오라 이르셨대요

그게 저... 정말 이십니까?

에...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적해서 그런 일을 시키시다니... 아!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또...

여봐라! 서둘러 물을 따르라

당일도 준비 하도록 하라

우빠와나 스님은 뜨거운 물을 부처님께 올려 목욕을 하신게 하고

함께 가지고 온 당밀을 풀어 마실수 있도록 준비 했는데

부처님께서 목욕후에 그 당밀까지 드시고는 위계양 증세가 없어 지셨답니다

이 과정을 열어서 지켜보던 데와히마 브라흐민이 부처님께 여쭙었는데

부처님 이시여!

어느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으뜸가는 공양이며

또 어떻게 시주하는 것이 으뜸가는 시주입니까?

지금 그대가 행한것과 같은 공양이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공양이니라

그리고 이 계승을 음으심으로써 평소 설법 하시던 공양 공덕을 다시 확인 하셨습니다

전생 일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지혜의 완성자 모든 것을 통달하고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진아, 실아 아빠가 스키장 가지신다

아빠 정말 이세요?

응

복잡하고 위험한 곳에 왜 가려고 해요?

거기 갈 시간 있으시면 절에 가요

아빠, 엄마 이 길에만 들어 서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거 있죠?

은 세상이 눈처럼 모두 깨끗 했으면 좋겠 죠?

어서가서 공양도 올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원도 하죠?

나도 그렇답니다

모자람이 많은 작품을 끝까지 애독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